

# 회 계 학

해설위원: 김 영 훈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1.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②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③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④ 매입채무와 같이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항목이라도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할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문제1] ④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가 예상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다만, 정상영업주기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상영업주기를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게 된다. 매입채무와 같이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인 항목은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되기 때문에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문 2. 20×1년 초 설립된 (주)한국의 20×1년 수정전시산표를 근거로 계산한 당기순이익은 ₩300,000이다. 다음 20×1년 중 발생한 거래의 분개에 대하여 결산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단, 결산수정분개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날짜	기중분개	결산수정사항
3월 1일	차변)토지 ₩1,000,000 대변)현금 ₩1,000,000	토지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며, 기말 공정가치는 ₩1,050,000
10월 1일	차변)선급보험료 ₩120,000 대변)현금 ₩120,000	1년분 화재보험료를 미리 지급함
11월 1일	차변)현금 ₩90,000 대변)임대수익 ₩90,000	6개월분 임대료를 미리 받음
12월 1일	차변)현금 ₩1,000,000 대변)단기차입금 ₩1,000,000	차입 시 이자를 연 6%, 이자와 원금은 6개월 후 일괄 상환조건

- ① ₩180,000
- ② ₩205,000
- ③ ₩235,000
- ④ ₩255,000

### [문제2] ②

수정 전 당기순이익	₩300,000	
당기 보험료	(30,000)	= ₩120,000 × 3/12
차기 임대수익	(60,000)	= ₩90,000 × 4/6
당기 이자비용	(5,000)	= ₩1,000,000 × 6% × 1/12
수정 후 당기순이익	₩205,000	

(Tip) 토지에 대한 재평가잉여금 ₩50,000은 당기순이익이 아닌 기타포괄이익에 반영되는 항목이다. 따라서 3월 1일 자료에 대해서는 분석할 필요가 없다.

문 3. (주)한국은 20×1년 초 건물을 ₩1,000,000에 취득하고 그 건물을 유형자산 또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유형자산은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며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고,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 20×1년과 20×2년 기말 공정가치가 각각 ₩990,000, ₩750,000일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건물은 유형자산 또는 투자부동산의 분류요건을 충족하며, 내용연수 동안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① 건물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면, 20×1년 말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이 계상된다.
- ② 건물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면, 20×2년 말 재평가손실(당기손익)이 계상된다.
- ③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면, 20×1년 말 투자부동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이 계상된다.
- ④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면, 20×2년 말 투자부동산평가손실(당기손익)이 계상된다.

### [문제3] ③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이 모두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 ③지문의 경우 투자부동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이 계상된다고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숫자를 이용하여 계산할 필요 없이 정답은 무조건 ③이 된다.

## 문 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이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 ③ 비화폐성 외화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
- ④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채무불이행에 따른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 [문제4] ①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이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제공한 실체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문 5.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본유지개념에서는 자본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산의 유입액만이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
- ② 재무자본유지개념에서의 이익은 해당기간동안 소유주에게 배분하거나 소유주가 출연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말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금액(화폐금액)이 기초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금액(화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 ③ 재무자본유지개념이 불변구매력 단위로 정의된다면 일반물가수준에 따른 가격상승을 초과하는 자산가격의 증가 부분만이 이익으로 간주된다.
- ④ 재무자본유지개념은 특정한 측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않으나,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순자산을 역사적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 [문제5] ④

재무자본유지개념은 특정한 측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않으나,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원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실물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취득한 자산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산을 유지해야 하며, 기존에 취득한 자산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취득할 경우 그 대가로 지불해야할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금액이 현행원가이다. 따라서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원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문 6.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주)한국의 20×1년 말 주가이익비율 (PER)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 계산한다)

- 20×1년도 당기순이익: ₩88  
 ○ 20×1년 1월 1일 유통보통주식수: 30주  
 ○ 20×1년 7월 1일 유상증자: 보통주 25주(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으로 1주당 발행가액은 ₩4이며, 이는 유상증자 권리라직전 주당 증가 ₩5보다 현저히 낮음)  
 ○ 20×1년 12월 31일 보통주 시가: 주당 ₩6

- ① 1.5                                      ② 2.0  
 ③ 2.5                                      ④ 3.0

[문제6] ④

$$PER = \frac{\text{주가(Priec)}}{\text{주당이익(EPS)}} = \frac{₩6}{\frac{₩88}{2}} = 3$$

※ 주당이익

(1) 7월 1일 유상증자에 대한 분석 :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상황임

$$\text{① 공정가치로 유상증자할 경우 발행주식수} = \frac{\text{유입금액}}{\text{권리행사 직전 주당 공정가치}} = \frac{25\text{주} \times ₩4}{₩5} = 20\text{주}$$

$$\text{② 무상증자 주식수} = \text{실제 유상증자 주식수} - \text{공정가치로 유상증자할 경우 발행주식수} = 25\text{주} - 20\text{주} = 5\text{주}$$

$$\text{③ 무상증자비율} = \frac{\text{무상증자 주식수}}{\text{권리행사직전 주식수} + \text{공정가치로 유상증자할 경우 발행주식수}} = \frac{5\text{주}}{30\text{주} + 20\text{주}} = 10\%$$

(2) 주당이익 계산

$$\frac{₩88}{30\text{주} \times 1.1 \times 12/12 + 20\text{주} \times 1.1 \times 6/12} = \frac{₩88}{44\text{주}} = ₩2$$

문 7. (주)한국은 20×1년 초 타사발행 사채A(액면금액 ₩500,000, 액면이자율 연 8%, 유효이자율 연 10%, 이자 매년 말 후급)를 ₩460,000에 취득하고, 이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사채A의 20×1년 기말 공정가치는 ₩520,000이며, 20×2년 초 사채A의 50%를 ₩290,000에 처분하였다. 사채A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인식할 20×1년 평가이익과, 20×2년 처분이익은?

- ① 평가이익 ₩54,000, 처분이익 ₩30,000  
 ② 평가이익 ₩54,000, 처분이익 ₩57,000  
 ③ 평가이익 ₩60,000, 처분이익 ₩30,000  
 ④ 평가이익 ₩60,000, 처분이익 ₩57,000

[문제7] ②

(1) 20×1년 평가이익

$$\begin{array}{rcl} 20 \times 1 \text{년말 공정가치} & ₩520,000 & \\ 20 \times 1 \text{년말 상각후원가} & (460,000) & = ₩460,000 \times 1.1 \\ & & - ₩40,000 \\ \hline \text{평가이익} & ₩54,000 & \end{array}$$

(2) 20×2년 처분이익

$$\begin{array}{rcl} \text{처분금액} & ₩290,000 & \\ \text{상각후원가} & (233,000) & = ₩466,000 \times 50\% \\ \hline \text{처분이익} & ₩57,000 & \end{array}$$

(Tip)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의 처분이익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의 처분이익과 동일한 금액이 계산된다.

문 8. (주)한국은 1월 1일 액면금액 ₩50,000(액면이자율 연 8%, 이자 매년 말 후급)의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같은 해 4월 1일에 발행하였다. 1월 1일과 4월 1일의 유효이자율은 10%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며, 1월 1일 사채의 현재가치는 ₩47,513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사채발행비는 발생되지 않았고, 사채이자자는 월단위로 계산하며,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① 4월 1일의 사채액면이자 미지급액은 ₩1,000이다.  
 ② 4월 1일의 사채장부금액은 ₩47,701이다.  
 ③ 4월 1일의 현금수령액은 ₩48,701이다.  
 ④ 4월 1일의 사채할인발행차금은 ₩2,487이다.

[문제8] ④

※ 이자지급일 사이의 사채 발행

[1단계] 직전 이자지급일의 현재가치	₩47,513	
[2단계] 실제발행일까지의 유효이자	₩1,188	= ₩47,513 × 10% × 3/12
[3단계] 실제발행일의 현금유입액	₩48,701	= [1단계] + [2단계]
[4단계] 실제발행일까지의 액면이자	₩1,000	= ₩50,000 × 8% × 3/12
[5단계] 실제발행일의 사채 장부금액	₩47,701	= [3단계] - [4단계]

$$\begin{aligned} \rightarrow 4\text{월 } 1\text{일 사채할인발행차금} &= \text{액면금액} - \text{장부금액} \\ &= ₩50,000 - ₩47,701 = ₩2,299 \end{aligned}$$

<참고>

4월 1일	(차)	현금	48,701	(대)	사채	5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2,299		미지급이자	1,000

문 9. (주)대한은 20×1년 12월 초 위탁판매를 위해 (주)민국에게 단위당 원가 ₩1,200인 상품 500개를 적송하면서 운임 ₩30,000을 현금 지급하였다. 20×2년 1월 초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주)대한은 (주)민국에서 다음과 같은 판매현황을 보고받았다.

매출액	400개 × @₩1,500 =	₩600,000
판매수수료	₩18,000	
운임 및 보관료	₩12,000	(₩30,000)
(주)대한에게 송금한 금액		₩570,000

(주)대한이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20×1년 재무제표에 인식할 매출액과 적송품 금액은? (단, (주)대한은 계속기록법을 채택하고 있다)

- |            |          |
|------------|----------|
| 매출액        | 적송품 금액   |
| ① ₩570,000 | ₩120,000 |
| ② ₩570,000 | ₩126,000 |
| ③ ₩600,000 | ₩120,000 |
| ④ ₩600,000 | ₩126,000 |

[문제9] ④

(1) 매출액 ₩600,000

$$(2) \text{적송품 } ₩126,000 = (\text{₩1,200} \times 500\text{개} + \text{₩30,000}) \times 100\text{개}/500\text{개}$$

(Tip) ① 적송하면서 발생한 운임은 적송품 원가에 가산한다.

② 적송품은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에 수익(매출)을 인식한다.

③ 적송품 중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상품은 기말재고에 포함된다.

문 10.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상환우선주 100주(주당 액면금액 ₩ 5,000, 연 배당률 6%, 누적적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다. (주)한국은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상환우선주를 20×3년 12월 31일에 주당 ₩ 6,000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배당금은 매년 말 지급하며, 상환우선주 발행 시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상환우선주 발행이 (주)한국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자율 10%, 3년간 ₩1의 현재가계수 및 연금현재가계수는 각각 0.75, 2.5라 가정하며, 현재가계수 가정에 따른 상환우선주 발행가와 유효이자율에 의한 만기상환장부금액의 차이는 무시한다)

- ① 20×1년 1월 1일 상환우선주의 발행가액은 ₩ 525,000이다.
- ② 20×1년 12월 31일 상환우선주의 장부가액은 ₩ 547,500이다.
- ③ 상환우선주의 발행으로 20×1년 당기순이익이 ₩ 52,500 감소한다.
- ④ 20×1년 배당금 ₩ 30,000은 자본요소와 관련되므로 당기순이익의 분배로 인식한다.

[문제10] ④

- (1) 상환우선주는 금융부채로 분류될 수도 있고 지분상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문제 10의 상환우선주는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이다.
- (2)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는 누적적 상환우선주와 비누적적 상환우선주로 구분할 수 있다.
- (가) 비누적적 상환우선주의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본다. 즉, 자본요소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당기순이익의 분배로 인식한다.
- (나) 누적적 우선주의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액을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 (다) 문제 10의 경우는 누적적 상환우선주이다. 따라서 배당금지급액을 이자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④지문은 비누적적 상환우선주일 경우에 해당하는 설명이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문제에 주어진 숫자를 이용하여 계산할 필요 없이 정답은 무조건 ④가 된다.

문 11. 비용의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기능별 분류보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기능별 분류보다 비용을 배분하는 데 자의성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 ③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비용을 기능별 분류로 배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간단할 수 있다.
- ④ 비용의 기능별 분류는 성격별 분류보다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더 유용하다.

[문제11] ③

구분	기능별 분류방법	성격별 분류방법
장점	목적적합한 정보 제공	① 비용을 기능별로 재분배할 필요가 없으므로 적용이 간단함 ② 비용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미래현금흐름 예측에 유용함
단점	자의적 상당한 판단이 개입됨	
주석공시	성격별 표시방법	① 재고자산의 순변동 ② 비용으로 인식한 원재료 및 소모품, 노무원가, 기타원가

문 12. (주)대한의 20×1년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 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초	기말
원재료	₩ 34,000	₩ 10,000
재공품	₩ 37,000	₩ 20,000
제품	₩ 10,000	₩ 48,000

원재료의 제조과정 투입금액은 모두 직접재료원가이고, 20×1년 중 매입한 원재료는 ₩ 56,000이다. 20×1년의 기본(기초)원가는 ₩ 320,000이고, 가공(전환)원가의 60%가 제조간접원가이다. (주)대한의 20×1년 매출원가는?

- ① ₩ 659,000
- ② ₩ 695,000
- ③ ₩ 899,000
- ④ ₩ 959,000

[문제12] ①

- (1)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기본(기초)원가  
₩80,000 + 직접노무원가 = ₩320,000 ∴ 직접노무원가 = ₩240,000
- (2) 가공원가 × 40% = 직접노무원가  
가공원가 × 40% = ₩240,000 ∴ 가공원가 = ₩600,000
- (3) 매출원가

원재료, 재공품, 제품			
기초원재료	34,000	기말원재료	10,000
원재료매입	56,000		
가공원가	600,000		
기초재공품	37,000	기말재공품	20,000
기초제품	10,000	기말제품	48,000
		매출원가	659,000
합계	737,000	합계	737,000

문 1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담금수익은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② 몰수품이 화폐성 자산이어서 몰수한 때에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몰수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③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한 경우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더라도 비용을 인식한다.
- ④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문제13] ③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한 경우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비용을 인식한다

문 1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댓값으로 변동대가를 추정하는 경우 가능한 대가의 범위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 금액으로 추정한다.
- ②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지를 평가할 때는 수익의 환원가능성 및 크기를 모두 고려한다.
- ③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교환하여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그 대가를 측정한다.
- ④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문제14] ①

기댓값으로 변동대가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대가의 범위에 있는 모든 금액에 각 확률을 곱한 금액의 합으로 추정한다.

문 15.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공장을 착공하여

20×2년 9월 30일 완공하였다. 공사 관련 지출과 차입금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대한이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수익은 없으며,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공사 관련 지출〉

일자	금액
20×1. 1. 1.	₩ 3,000
20×1. 10. 1.	₩ 2,000

〈차입금 내역〉

구분	금액	이자율(연)	기간
특정차입금	₩ 1,000	4 %	20×0. 12. 1. ~ 20×3. 12. 31.
일반차입금A	₩ 1,000	5 %	20×1. 1. 1. ~ 20×2. 11. 30.
일반차입금B	₩ 2,000	8 %	20×0. 7. 1. ~ 20×3. 6. 30.

- ① ₩ 40                                      ② ₩ 175  
③ ₩ 215                                      ④ ₩ 280

[문제15] ③

- (1) 평균지출액 : ₩3,000×12/12 + ₩2,000×3/12 = ₩3,500  
(2) 자본화이자율

$$\frac{₩1,000 \times 12/12 \times 5\% + ₩2,000 \times 12/12 \times 8\%}{₩1,000 \times 12/12 + ₩2,000 \times 12/12} = \frac{₩210}{₩3,000} = 7\%$$

- (3) 차입원가자본화 : ① + ② = ₩215

- ① 특정차입금 : ₩1,000×12/12×4% = ₩40  
② 일반차입금 : (₩3,500 - ₩1,000×12/12)×7% = ₩175 (한도 : ₩210)

문 16. 다음은 A 중앙관서의 일반회계 20×1년도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A 중앙관서의 20×1년 말 순자산변동표에 계상될 기말순자산액은?

- 20×1년 기초순자산은 ₩ 300,000이고, 재정운영결과는 ₩ 200,000이다.  
○ 20×1년 중 국고수입은 ₩ 150,000이고, 채무면제이익은 ₩ 50,000이다.  
○ 20×1년 중 국고이전지출은 ₩ 120,000이고, 무상이전지출은 ₩ 40,000이다.  
○ 20×1년 중 투자목적 장기투자증권을 ₩ 10,000에 취득하였으며,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은 ₩ 30,000이다.

- ① ₩ 160,000                                      ② ₩ 180,000  
③ ₩ 550,000                                      ④ ₩ 560,000

[문제16] ①

기초순자산	₩300,000
재정운영결과	(200,000)
국고수입	150,000
채무면제이익	50,000
국고이전지출	(120,000)
무상이전지출	(40,000)
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	20,000
기말순자산	160,000

문 17.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권을 취득(취득원가 ₩ 1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 0, 정액법 상각)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특허권은 활성시장이 존재하며, 20×2년 말 손상이 발생하였고, 20×3년 말 손상이 회복되었다. 연도별 특허권의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20×3년 말 손상차손환입액과 재평가잉여금 증가액은? (단, 내용연수 동안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구분	20×1년 말	20×2년 말	20×3년 말
공정가치	₩ 8,400	₩ 5,900	₩ 4,200
회수가능액	₩ 8,500	₩ 5,400	₩ 4,100

- ① 손상차손환입액 ₩ 500,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 0  
② 손상차손환입액 ₩ 500,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 100  
③ 손상차손환입액 ₩ 600,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 0  
④ 손상차손환입액 ₩ 600,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 100

[문제17] ②

- (1) 20×1년말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 ₩400  
(2) 20×2년말 재평가잉여금 감소액 : ₩400  
20×2년말 손상차손 : ₩500  
(3) 20×3년말 손상차손환입 : ₩500  
20×3년말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 ₩100

문 18. (주)대한의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은 각각 ₩ 400, 유동부채는 ₩ 500, 매출총이익은 ₩ 6,000, 유동비율은 200 %, 매출총이익률은 60 %인 경우 재고자산회전율과 당좌비율은? (단,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재고자산회전율(회)                      당좌비율(%)

- ① 10    60  
② 10    120  
③ 25    60  
④ 25    120

[문제18] ②

(1) 재고자산회전율

$$\frac{\text{매출원가}}{\text{매출총이익}} \times \frac{\text{매출원가율}}{\text{매출총이익률}} = ₩6,000 \times \frac{0.4}{0.6} = ₩4,000$$

$$\text{재고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원가}}{\text{평균 재고자산}} = \frac{₩4,000}{(₩400+₩400)/2} = 10$$

(2) 당좌비율

$$\text{유동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 \frac{?}{₩500} = ₩200\%$$

∴ 유동자산 : ₩1,000

$$\text{당좌비율} = \frac{\text{당좌자산}}{\text{유동부채}} = \frac{\text{유동자산} - \text{재고자산}}{\text{유동부채}} = \frac{₩1,000 - ₩400}{₩500} = 120\%$$

$$= (\text{₩}72,000 + \text{₩}72,000 \times 0.05 \times 2/12) - \text{₩}72,030 = \text{₩}570$$